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4월 정기 당회를 오늘 오후 7시 30분에 화상으로 합니다.
- 특별 기도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온 성도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 하기 바랍니다.
1) St David's 교회를 주관하는 오uckland 북 노회 임원들의 마음을 감동 시키시사 여러 현안들을 우리 교회와 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2)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온 민족이 교만과 사악함을 회개하며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잘 진행되도록 (선교란에 있는 오한협 COVID-119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이번 주로 13주 차입니다. 결승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위: 요한복음 19장-사도행전 25장까지입니다).
- 유아 세례식을 Lockdown이 계속되는 관계로 오는 5월 31일 주일로 연기합니다.
-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를 오는 30일 (목) 오후 7시 30분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인도자들은 5, 6과를 연습하기 바랍니다.
-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화나 인터넷 매체로 교체하며 서로 용기를 주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주일예배를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방을 통해 전달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

현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5월 교회사역일지

5월 3일(주일) 자녀주일
5월 10일(주일) 부모주일
5월 31일(주일) 권사 기도회, 유아 세례식

5월 기도 순서

5월 3일 (주일) 박병민 장로
5월 6일 (수) 가정예배
5월 10일 (주일) 손조훈 집사
5월 13일 (수) 가정예배

5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17호

2020.04.26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금요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주 일 예 배

1부 오후 1시
(온라인 예배)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하박국 2:20, 요한복음 4:24	인도자
✧ 찬 송	28장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59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창세기 5:1-5, 21-24	인도자
설 교	이담의 계보에서 배우는 유산	이태한 목사
찬 송	445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응 답 송	310장 (1,4절)	다같이
✧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요예배 (가정예배) 오후 7시 30분

성 경 봉 독 예배소서 1:3
설 교 찬송하리로다
이성철 목사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수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오한협 COVID-119 기도문

하늘의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 이상, 아홉 가지 기도 제목으로

1. 주님, 온 세계가 'Covid-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선포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뜻을 펼치는 예배자들이 생겨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인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 주변의 작은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볼 수 있는 삶의 예배로 연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 드립니다!
3.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Covid-19'의 확산보다 더욱 무섭고 악한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를 폐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뉴질랜드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가 방역과 예배를 동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 주님, 주님께서 손을 들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5. 주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6. 주님, 속히 'Covid-19'를 종식시켜 주셔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Covid-19'가 종식된 이후의 교회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소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병든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소서!
7. 주님, 'Covid-19' 때문에 더 잘 되는 국가, 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동행해 주시고, 돌보심을 항상 기억하며 어떤 두려움이 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9.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가 자녀를 가슴에 품고 덮고 돌보듯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선교란에 있는 연합 기도 제목으로 대신하며 이번 주까지입니다)

나눔란

2020년 4월 19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애통하는 자의 복, 위로> 마태복음 5:4

팔복 중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입니다(5:4). 이 말씀은 웃음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세상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애통하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자(마 4:23) 그 소문이 퍼져(4:24)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마 4:25) 천국 복음과 진리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때문에 온 것이기에(4:24) 제자들이 들떠 제자들의 삶을 잘못 이해할까 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영적인 애통함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에는 두 가지 애통함이 있습니다.

1) 자신을 향한 애통: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냉정하게 돌아볼 때 나오는 애통입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요즘의 기회를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시간으로 전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태했던 신앙을 애통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애통은 바울 사도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한 것처럼 철저히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일어납니다(롬 7:24).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인터넷 보며 잠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행동 속에 내포된 죄성을 바라보며 왜 그랬는지 자문하며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움하며 애통하며 뉘우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애통입니다.

2) 이웃을 향한 애통: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신앙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주야로 울었던 예레미야(렘 9:1)처럼 이웃의 타락과 사악함을 가슴에 안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죄의 본질을 보고 우셨으며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을 것을 보고 애통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와(마 9:36) 병자들을 보시고(막 1:41)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그 마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은 기도는 물론 삶 속에서 적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6일 큰 태풍으로 초토화된 비누아투에 성탄절 감사헌금 전액을 보내주었습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호 6:6)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이웃을 향한 애통입니다.

3)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위로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시 126:5). 하신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고후 1:4).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는 여호와께서(시 34:18)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심한 통곡으로 간구하시며 애통하셨듯이(히 5:7). 애통함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애통함으로 신앙이 더 성숙하는 은혜를 누리는 갈보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 5: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